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2, pp. 315-324,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2.3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김민경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A Convergent Study of Variables Influencing on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Min-Kyeong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186명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자료분석은 SPSS 23. 프로그램에 의해 기술통계,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자존감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망감이 3.34, 차별경험 3.14, 학교폭력경험 2.78, 자살생각이 1.98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생각에 자존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계를 보였다. 셋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망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수록,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무망감을 비롯한 심리적 요인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차별경험 등 사회관계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존감, 학교폭력피해경험, 차별경험, 자살생각, 다문화가족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ocio-demographic variable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socio-relational variables influencing on suicide ide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186 multicultural adolescents. Data analysis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3.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Self-esteem is highest in 3.40, hopelessness is 3.34, discrimination experience is 3.14, school violence victim is 2.78 and suicide ideation is 1.98. Suicide ide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school violence victim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except self-esteem. Multicultural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was positively affected by significant hopelessness, depression, stress, school violence victim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the findings was provided basic report for the intervention program on suicide ideation regarding to psychological variables and socio-relational variabl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Self-esteem, School violence victim, Discrimination experience, Suicide ideation, Multicultural family's adolescents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본 논문은 2018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Kyeong Kim(mkm35@nsu.ac.kr)
Received January 2, 2019 Revised February 8,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도래한 이후 많은 변화들 중 하나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이 급격하게 증가이다. 2018년 다문화가족자녀 초중고 학생은 122,212명으로 전년대비 11.7%가 증가하였고 초등학생 12.4%, 중학생 13.3%, 고등학생 3.4%로 주로 초중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9.1%로 가장 높고 중국(한국계 제외)이 22.3%, 필리핀 11.5% 순으로 나타났다[1].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12세 이하가 80%로 대부분 아동에 해당되나[1] 이들은 곧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된다. 청소년이 접하는 문제들 외에 부모의 국가가 다른 이중문화가 접점을 이루는 특수한 가족 및 사회환경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겪고 있는 갈등, 차별,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자살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2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특히 10대 인구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로 나타나 청소년 사망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Kim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12.8%가 자살생각을 경험하나[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우 전체 중 21.2%가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정도와 더불어 학교폭력, 음주, 약물 등의 생활행태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자살생각은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자살과정의 첫단추이자 전조일 수 있으며[5,6],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후 자살시도의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배나 높다[7]. 따라서 자살생각을 정확히 탐색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하여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기 다문화가족자녀의 삶의 질을 담보해줄 수 있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또래관계, 학업성적 부진, 차별,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의 정신건강의 취약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8].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성별, 경제적 상태 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4,10]과 폭력경험이나 음주[9,10]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 가능성은 높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나[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체계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자살생각의 원인과 해결의 잠재자원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신,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의 외적 체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에 이르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나눠 이들 요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관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관련요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795명 중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는 17.2%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 남학생 14.1%, 여학생이 20.9%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10,11]. 연령에 따라서는 거의 많은 연구들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청소

년 남녀 모두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상태가 낮은 군에서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11]. 부모국적에 따라서는 모가 외국출신보다는 부가 외국출신인 경우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강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11].

2.2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관련변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12,13].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행복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10].

무망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실패감, 의기소침, 죄책감, 불행 등을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다[14]. 무망감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무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다. 특히 냉담, 슬픔, 비관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우울, 정신운동 지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로 연결된다[15]. 미래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인 생각인 무망감이 자살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16,17]. 무망감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의 어려움을 불러오는데[18],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무망감 수준을 파악하고 무망감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입은 자살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우울에 스트레스, 폭력경험, 차별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12,19], 이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또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자존감과 자살과의 관계를 보면 청소년의 자살행동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20].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며[21],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살시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22]. 정신병원에 입원한 13 - 18세의 청소년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이 자살생각이 없는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났고, 이는 우울이 통제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3].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적 요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차별경험은 다양한 심리적 건강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13,19,24]. 폭력피해경험과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적응도가 낮고 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학교폭력피해경험을 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었다[1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은 1차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외로움과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이 높아진다[25].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우울증가와 사회적 위축 등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26].

또한 차별경험이 높은 집단에서 심리적 부적응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3,27].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이탈을 의미하는 자살강도에서 일반 청소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1]. 차별경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부정적 발달양상과 부적응적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 도 등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청소년자녀나 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2일부터 2018

년 7월 31일까지 수행되었다. 조사에 앞서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부를 배부한 후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6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모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한 청소년자녀로 한정한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contents		N	%
sex	Male	89	47.8
	Female	97	52.2
age	Under 14	53	28.4
	15-16	83	44.5
	over 17	30	16.1
Mother's country	Vietnam	14	7.5
	Philipines	38	20.5
	Japan	19	10.2
	Mongol	6	3.2
	China	86	46.2
	Etc.	23	12.4
Monthly income(won)	Under 200	96	51.6
	201-300	58	31.2
	301-400	18	9.7
	Over 401	14	7.5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에서 남학생은 47.8%, 여학생은 52.2%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4세에서 18세까지 분포되었다. 모출신국은 중국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20.55%,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이하가 51.6%로 가장 높고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31.2% 순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자살생각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28]의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로 현재의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를 [2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언제 자살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았다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5이다.

3.2.2 스트레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척도(Adolescents's Stress Scale)를 이용하였다[30]. 부모스트레스(4문항), 학업스트레스(4), 친구와의 스트레스(3) 외모스트레스(4), 재정스트레스(2)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3이다.

3.2.3 우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질문은 Oh의 연구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활용한 질문을 참조하였다[19]. '당신이 지난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우울하게 느낀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요즘 외로움을 느낀다' 등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2.4 무망감

무망감 척도는 Beck(1974)이 개발한 척도를[31], Shin et al(1990)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이다[32]. 본 척도는 긍정적 희망감(9문항), 부정적 무망감(11문항) 총 20문항에서 부정적 무망감만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부정적 무망감 .93이다.

3.2.5 자존감

자존감은 [33]이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활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5문항) 총 10문항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89이다.

3.2.6 학교폭력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유형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 폭력의 유형으로 (1)협박이나 욕설, (2)온오프라인에서의 욕설과 비방, (3)강제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4)돈이나 물건빼앗

음, (5)손, 발 도구로 맞거나 특정장소에 갖힘, (6)성적인 부끄럼움을 갖게하는 행동이나 만지는 행위, (7)집단따돌림, (8)기타 등 총 8문항으로 최고 8점으로 환산하였다[19].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2.7 차별경험

차별경험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나쁜 말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Huh와 Jung이 사용했던 척도를 중심으로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13, 19].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에 1점, 심한 차별을 받았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을 산출하고,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관련 변인들과 자살생각의 일반적 경향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관련 변인들과 자살생각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자존감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망감이 3.34, 차별경험 3.14, 학교폭력경험 2.78, 우울이 2.65, 스트레스 2.54, 자살생각이 1.98로 나타났다. 자존감을 제외한 무망감, 우울, 폭력경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이 부정적 특성을 가진 요인들로 중간 점수인 3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4.2 변인들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Trends of variables

	M	SD	Max.	Min.
Stress	2.54	.80	5.00	1.00
Hopelessness	3.34	.80	5.00	1.00
Depression	2.65	.79	5.00	1.00
Self-respect	3.40	.84	5.00	1.00
Schoolviolence	2.78	.51	7.00	1.00
Discrimination	3.14	.69	5.00	1.00
Suicide ideation	1.98	.59	5.00	1.00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1	2	3	4	5	6
1. Stress	1.00					
2 Hopelessness	.36**	1.00				
3. Deporession	.30***	.45***	1.00			
4. Self-respect	-.18**	-.38***	-.33***	1.00		
5. Schoolviolence	.30***	.43***	.40***	-.29**	1.00	
6. Discrimination	.23**	.38***	.29***	-.23**	.21**	1.00
7.Suicide ideation	.27***	-.48***	-38***	-.30***	.43***	.20**

**p<.01 ***p<.001

자살생각과 나머지 변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살생각(r=36, p<.001)과 무망감과 높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학교폭력경험(r=.30 p<.001)과도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이들 변인들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망감은 우울(r=.45 p<.001)과 학교폭력경험(r=.45 p<.001)과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존감과 모든 변인들과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폭력피해경험(r=-.40 p<.001), 무망감(r=-.38 p<.001)과 우울(r=-.33 p<.001)높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존감은 자살생각(r=-.30 p<.001)과 높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자존감은 학교폭력피해경험을 비롯한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의 부정적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4.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보이는 연령, 성별과 가정경제적 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 결과 성별(β=-.18, p<.01)과 가정경제적 수준(β=-.16, p<.05)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정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무망감(β=.29, p<.001), 우울(β=.21, p<.001), 스트레스(β=.19, p<.05), 자존감(β=-.18, p<.05)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2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울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망감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중요한 견인작용을 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존감과 같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학교폭력경험(β=.26, p<.001), 차별경험(β=.17, p<.05)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1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경험과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통합모형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3.0%로 나타났다. 즉 무망감(β=.26, p<.001), 우울(β=.19, p<.001), 스트레스(β=.18, p<.05), 학교폭력 피해경험(β=.23, p<.001), 차별경험(β=.17, p<.05)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투입된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또한 심리적 요인 중 자존감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투입되었을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리적 요인의 무망감, 우울, 스트레스와 사회관계적 요인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차별경험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무망감, 무력감과 우울한 느낌,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살생각과 깊게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Effects of related varibles

Dependent / Independent	Suicidal Ideation			
	1 Model	2 Model	3 Model	Integration
	β	β	β	β
Constant				
Age	.03			.02
Sex+	-.18**			-.12
Income	-.16*			-.09
Stress		.19*		.18*
Hopelessness		.29***		.26***
Depression		.21***		19***
Self-respect		-.18*		-.15
School violence			.26***	.23***
Discrimination			.17*	.17*
R^2	.15	.25	.18	.33
F	24.17***	18.49***	20.76***	16.98***

(+Sex :0=Male, 1=Female)*p<.05 **p<.01 ***p<.001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주요활동근거지이자 환경인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경험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되어 남아있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차별적 시선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무망감과 폭력피해경험 등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차원은 무엇보다도 다문화청소년자신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의식의 해소와 부정적 무망감을 조절하고 감소해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자살생각과 관련요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변인들간의 관계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측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망감이 3.34, 차별경험 3.14, 학교폭력 피해경험 2.78, 우울 2.65, 스트레스 2.54, 자살생각이 1.98로 각각 나타났다. 자존감을 제외한 무망감, 우울, 폭력경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이 부정적 특성을 가진 요인들로 무망감과 차별경험의 수준이 3점을 상회하게 나타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차별적인 주위환경의 시선과 인식의 변화가 시급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특히 무망감이 5점 척도에서 3.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경숙외(2017)의 연구에서도 4점 척도에서 2.71로 비슷한 수준임을 볼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동기부여 등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34].

둘째, 무망감과 우울과 자살생각과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발견되었는데 미래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생각과 우울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한다는 결과[16] 등을 볼 때 무망감과 우울은 자살에 대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존감은 무망감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를 내포하는 심리적 요인, 학교폭력 피해경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과의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무망감과 우울, 사회관계적 요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수용할 때 부정적 기제의 심리적 요인을 완화시키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외부의 저항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차별경험 또한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과 다소 높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는데 또래나 선후배, 교사 등의 학교폭력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외모나 부모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다양한 채널로 차별경험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치명적이며 일종의 또다른 폭력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가정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정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인 경우 자살생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높은 비율의 자살생각을 보고한 선행연구들[9-11]과 일치된 결과이며, 자살예방의 시작점인 자살생각을 개입하는데 있어 여학생이 정서적 반응에 더 민감하다는 점도 고려한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만을 투입한 경우 가정경제적 수준 또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가정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이 일반가족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수준 자체를 단시간 향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개인차원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지를 변화시키고 물질만능주의적 사고의 확산보다는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불평등해소와 불균형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넷째, 심리적 요인 중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인지도 중요하나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식이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결과[9,34]를 볼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대처전략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무망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하고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무망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높게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살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자살행위의 단일한 심리적 과정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상당부분 무망감이 일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심리적 요인들만을 단일하게 투입한 결과와 통합모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무망감은 동일하게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은 무망감과 유사하게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우울감이 있는 경우 4.5배나 높게 자살생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차원에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중재안이 마련되어 개입되어야 하겠다.

자존감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자살생각이 많고, 이러한 자살생각이 성인으로 성장 후 정신사회적 기능 및 정신 기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35],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은 다른 시기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중 신뢰 등이 수반된다면 자살생각은 낮아진다고 하겠으며 자살생각을 완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존감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향상 및 프로그램 등이 적극 개발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는데 폭력경험이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들[4,36]가 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치료와 개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당국의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차별도 또다른 폭력의 유형일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일관되게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특별히 통합모형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정적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는 교육과 집단프로그램 등의 개입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무망감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인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망감과 우울의 강력한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정신건강지원이 자살예방에 매우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무망감과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서조절 중재프로그램 실시와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이 고취될 수 있는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자살은 특성상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살자 뿐만아니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폭력피해나 차별경험은 희생과 또다른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순환과정을 내포하므로 피해경험 청소년에게는 먼저 폭력근절을 위한 안정된 사회구조적 학교환경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에서는 다문화적 역량을 증진하여 차별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노력도 요구된다. 특히 고위험군 자살생각을 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 상담지원과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이들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등 심리적 요인과 사회관계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차별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의는 개인을 넘어 사회환경을 영향력을 고려한 접근으로 생태체계적 개입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결과가 제시되어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학교나 사회의 중요한 영향력을 매일 일상의 생활속에서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인과 학교 및 사회환경을 고려한 중재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접근이 자살대상자를 직접 접촉하여 연구할 수 없다는 한계로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나 흡연 등의 건강행위행태, 부모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부지역 대상자와 유의표집을 통한 연구대상 모집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후속연구로는 고위험군 자살생각 집단을 중심으로 자살시도 및 자살강도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심층적인 질적 접근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예방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도 파악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뿐만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북한이탈가족 청소년 등에 대한 접근도 함께 분석되어 그 차별성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1] Korean education statistics center.(2018). 2018 The basic education statistics.

[2] Ministry of Education, Minstry of Health and Welfare.(2015).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eleven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

[3] W. F. Ranieri., R. A. Steer., T. L. Lavrence., D. J. Rissmiller., G. E. Piper., A. T. Beck.(1987). Relationship of depression, hopelessnes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to suicide ideation in psychiatric 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61, 967-975.

[4] H. S. Park, J. H. Yu. B. Y. Park(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Electronic Communication, 8(5), 771-777.

[5] A. T. Beck., J. H. Davis., C. J. Frederick., S. Perlin., A. D. Pokorny., R. E. Schulman., R. H. Seiden., B. J. Wittlin.(1972). Classification and nomenclature, In H. L. Tesnick, & B. C. Hathorne (Eds.), Suicide Prevention in the 70'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7-12.

[6] W. F. Ranieri., R. A. Steer., T. L. Lavrence., D. J. Rissmiller., G. E. Piper., A. T. Beck.(1987). Relationship of depression, hopelessnes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to suicide ideation in psychiatric 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61, 967-975.

[7] W. Kuo., J. J. Gallo., A. Y. Tien.(2001). Incidence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adults: The 13-year follow-up of a community sample in Baltimore. Maryland Psychological Medicine, 31, 1181-1191.

[8] B. S. Lee, J. S. Kim, K. S. Kim.(2013). Factors that affec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1), 64-75.

[9] G. Y. Park, Y. R. Kim, B. R. Kim.(2013).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KJOHSM,7(1), 155-165.

[10] J. Y. Lee, K. M. Kim.(2017).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south Korea: Gender difference.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1(2), 119-129.

[11] H. S. Kim, D. S. Kim.(2014).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differential risks of suicidal ideation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ciology, vol. 48(2), 117-129.

[12] M. K. Kim.(2018). A convergent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89-197.

[13] C. A. Huh, G. H. Jung.(2018). Identifying latent profiles of discrimination, stress,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predictors of profile membership.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6(4), 177-190.

[14] A. T. Beck.(1967).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Depression: Clinical.

[15] L. Y. Abramson., M. E. P. Seligman., J. Teasdale.(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adolescents living in a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9.

[16] T. W. Um.(2008) A study on related varoables on adolescents' hopelessness: Focusing on social support. Korean Youth Studies, 15(5), 211-237.

[17] J. L. White.(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1989.

[18] K. S. Lee.(2011). A study on rural old men's hopelessness. Doctoral dissertation, Baesuk University.

[19] S. H. Oh.(2016). The study on the eco-systematic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6, 1-27.

[20] N. Garnefski., F. W. Dieskstra.(1997). Adolescents from one 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Emotional problems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ce, 20(2), 201-208.

[21] M. O. Marcenko., G. Fichman., J. Friedman.(1999). Reexamin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pplied to a diverse pop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121-138.

[22] A. Pinto., A. A. Whisman.(1996). Negative affect and cognitive biases for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58-165.

[23] J. M. Oliver, J. C. Paul.(1995). Self-esteem and self-efficancy : Perceived parenting and family climate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 471-481.

[24] B. K. Park, P. S. Noh.(2016).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abuse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Korean Youth Studies, 23(10), 181-203.

[25] S. J. Kim, C. H. Hong.(2017).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Korean Youth Studies, 24(1), 195-211.

[26] H. C. Kim, S. H. Mo, S. B. Oh.(2015). A total report: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urvey and suggestion of polic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7] S. R. Sirin, P. Ryce, T. Gupta, L. Rogers-Sirin.(2013).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A lo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36.
[28] W. M. Reynolds.(1998). Suicidal Ideation Questio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29] B. K. Park.(2006). A eco-systemic variables exploration of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0] S. M. Jang, D. S. Lim, B. K. Song.(1991). Guidance of career maturity scale for adolescents. Research reports. RR 91-5-1, Seoul: Institute for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31] A. T.. Beck, A., Weissman, D., Lester, & L. Trexler(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32] M. S. Shin., K. B. Park., K. J. O., J. S. Kim.(1990). A study on trends of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ideation. Korean Psychology: Clinical, 9(1), 1-19.
[33] M. Rosenberg.(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4] K. S. Kim, M. J. Kim, M. K. Kim, S. J. Ju, E. J. S.(2017).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stree coping styles and self-esteem on positive hope and negative hopelessness in south Korea. Journal of Wellness, 12(3), 127-138.
[35] H. C. Steinhausen., C. W. Winkler-Metzke.(2004). The impact of suicidal ideation in preadolescenc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n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in young adulthood. Acta Psychiatr Scand, 110(6), 438-445.
[36] J. Y. Kim.(2015). Factors influencing attempted suicide among adolescents in Korea. JKAIS, 16(5), 3139-3147.

김 민 경(Min-Kyeong Kim) [정회원]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 정신건강, 청소년
・E-Mail : mkm35@nsu.ac.kr